



[소주]

도전정신 부족하고 현실에 안주

2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나라 땅 소주는 희곡문화와 함께 원림으로 대표되는 건축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이다.

소주의 원림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은둔문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나 관직에 실망하거나 전란을 피하거나 위진유풍(魏나라와晉나라의 유풍)의 영향으로 원림을 건설하게 됐다. 은둔은 고결한 삶의 표현으로 알려져 은사들은 타인의 존경을 받았다. 이같은

은둔문화는 폐쇄적이고 한 지역에 머물면서 쉽게 현실에 만족하는 문화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개척정신이 부족하게 됐다.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의 패권다툼, 그리고 서초패왕과 유방의 대결을 통해 이 지역 사람들은 인정과 관용이 많고 용맹스럽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왕 부차는 자신의 용맹한 군사를 이끌고 그 당시 강호인 구천을 사로잡았지만 결국 자

신의 관용으로 풀어주었다가 화를 입게 된다. 용맹을 세상에 떨친 서초패왕 항우도 이 지역 출신으로 팔천명의 강동 자제병을 이끌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인정과 관용이 너무 많고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해 결국 비운을 맞게 됐다.

하지만 부차와 항우의 뒤를 이어 용맹을 떨친 사람은 보기 드물었고 대체로 정치에 둔감한 편이다. 수천 년간의 반란의 역사 또한 소주와 무관하게 보이고 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주인들이 용맹은 이어받지 못하였지만 인정과 관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들 한다. 소주인들은 정치에 둔감하고 은둔생활에 적응돼 있다.

소주 지역은 물이 많고 쌀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다.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소주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했으며 사계절을 거쳐 끊임없이 노동을 함으로써 남달리 뛰어난 끈기를 갖게 됐다. 소주인들의 섬세함과 인내심은 이들의 손을 거친 자수, 비단,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이들의 섬세함과 손재주가 없었다면 이렇게 정교한 예술품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소주의 또다른 특징은 여성화된 도시이다. 소주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여성을 통해 전달되는 소주의 언어는 마치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음악에 빠져드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외에 마음가짐, 생활습관에서도 나타나는데, 대체로 여성의 특징으로 꼽히는 섬세함, 부드러움, 유연함이 돋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와도 맞물리고 있다.

소주인의 여성화는 결코 폼하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오늘날 산업 환경에서 소주인의 섬세함, 인내심과 손재주는 하나의 경쟁우위로 작용하고 있다. 소주에 수많은 외국투자가 몰리는 이유가 이러한 경쟁우위에 의해 모두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진출에 있어 입지를 선정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지만 소주에 와서는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고 결정한다고 한다. 특히 정교함을 요구하는 전자와 같은 산업은 더욱 그렇다.

소주 여성들은 남성을 대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한다. 소주 남성들은 출근하면 상사의 지시 영도의 지시를 듣고 퇴근하면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한다.

우스개로 소주 여성들을 가리켜 성공한 남성의 뒤에는 위대한 소주 여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글 · 이명길 (rogers@copartner.net)
(주)코파트너 대표이사

제 1608호 2006년09월20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장사]

타고난 입담에 아는 척 잘해도 소탈한 성격

중국의 수많은 도시인들처럼 장사인들도 잘난 체하기로 유명하다. 장사인들은 모두가 전문가로서 주제에 상관없이 아는 체한다.

무한을 ‘소시민 문화’ 라고 한다면 장사는 ‘건달 문화’ 라고 할 수 있다. 호방하고 소탈한 성격에 수준이 낮은 사람이 비교적 많은 장사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문화이다. 버스를 타면 노인들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건네는 경우가 보기 드물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면 자신이 원래 수준이 낮다고 오히려 큰소리로 대드는 사람은 아마 장사인들 뿐일 것이다.

장사인들은 낙천적인 성격을 타고났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그들은 항상 낙천적인 웃음을 잃지 않는다.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변할 것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아무리 큰일이라고 해도 장사인의 입을 거치면 별일 아닌 것으로 된다.

장사인을 ‘노새’ 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격이 곧고 고집이 세기로 유명해 붙여진 별명이다. 과거에는 싸우기를 좋아했는데, 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북방지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무한인들도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장사인들은 입으로 싸우지 주먹으로 싸우는 것을 보기 드물다. 장사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으면 화가 난 북방인은 주저없이 주먹을 날린다. 언어맞으면서도 장사인은 욕

만 퍼붓고 북방인의 주먹은 비오듯 날아든다.

장사인들은 식생활에 관심이 많지만 예상 외로 수준이 낮다. 모든 음식은 매운 맛뿐이다. 아무리 산해진미라고 해도 장사인들의 요리를 거치면 고추의 매운 맛만 남는다. 맛좋은 음식을 즐기기도는 땀을 내기 위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다.

장사 남성들은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데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준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주고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부탁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사 남성들은 성격이 호방하고 소탈하다. 대체로 타인을 음해하거나 뒤에서 헐담을 하지 않는다. 상대가 눈에 거슬리면 바로 거슬린다고 말하며 술 한 잔에 친구가 되기 쉽다. 도량이 넓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데 이는 상해인들과 상반된다.

장사 남성들은 정직하고 정열적이다. 역사적으로 장사인들 중에는 혁명가가 많이 배출됐다. 이들은 사악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한다.

장사 여성들은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는다. 여성이 어느 정도 허영심에 들뜨는 것은 양해해 줄 수 있지만 장사 여성처럼 심각한 경우에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다. 외지 남성이 장사에 발을 들여놓으면 장사 여성들은 거들떠

도 안 본다.

남성들과 대화를 할 때도 모든 것에 아는 체하는 데, 소위 '천상의 일은 절반 알고, 지상의 일은 모두 안다'고 할 정도로 아는 체한다. 이는 장사 여성들이 체면에 집착하면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장사 여성들은 먹기를 좋아하기로 유명하다.

소비도시로서 특히 식생활과 관련된 소비가 중국내에서 상위권에 드는데 이는 장사 여

성들이 한몫을 한 결과라고 한다.

장사인들은 언제부터인가 나태해지고 허영심에 들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다. 노력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대박을 꿈꾸는 장사인들이 많아졌다.

언론매체들은 장사인들의 이같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통해 최근 급성장한 분야로 손꼽힌다.

제 1607호 2006년09월1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무한]

육 잘하는 다혈질이지만 인정도 넘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무한은 초나라 문화와 노장사상이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동서로 상해와 중경을 연결하고, 남북으로 북경과 광주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다. 양자강의 한 부두에서부터 번창한 연유로 무한 남성들은 끈기가 있고 과거 강호의 풍습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무한은 뛰어난 '육설문화'로 유명하다. 육설문화로 부르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육설이 문자 그대로 육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설이 담긴 말이지만 육을 한 것이 아닌 하나의 습관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육설이 섞이기 때문이다.

무한인의 성격에는 강인하고 용맹스럽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이 있다. 이러한 정신은 시원시원한 성격과 결합돼 두려움을 모르는 성격을 형성했다.

이는 아마도 오랜 기간 겪어온 천재지변과 고온혹서 및 전란 등으로 생사존망에 대해 초탈한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장기간 소외됐던 관계로 무한인들의 다혈질적인 기질도 많이 변화됐다. 현재의 무한은 가장 서민적인 도시로 불리며 무한에서 생활하는 무한인 또한 가장 서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폭넓게 분석하는 능력이나 예견 능력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순간 포착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민첩함을 갖고 있다. 하나같이 눈치와 행동이 빠르고 두뇌 회전이 빠른 실리주의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친구는 없고 영원한 이익만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술, 담배, 일용잡화 등 소규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화점을 드나들며 상품도 매업을 하는 것은 무한인들의 장기라고 할 수 있다.

여럿이 협력하기보다는 혼자서 장사하기를 좋아한다. 공동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상 이몽으로 인해 나중에는 헤어지기 심상이다. 호북 사람들은 집안 싸움으로 유명한데 무한 인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를 염두에 뒀야 한다. 우선은 의협심이 있어야 하고 대범해야 하며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무한 친구를 찾으면 선뜻 도움을 준다.

무한 남성들은 비록 세련되지 않았지만 성격이 곧은 만큼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친구를 대할 때 절대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음해하지 않는다. 무한 남성들은 나쁘게 표현하면 동물적인 습성이 있고 좋게 표현하면 전국시대 초나라의 낭만적인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무한 남성의 다혈질 성격은 칼날 같은 세치의 혀이지만 마음만은 비단과도 같아 인정이 많다.

일반적으로 외지인들이 무한 남성들에 대

해 혀를 내두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며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다. 실수하거나 실패한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고 환득환실하지도 않는다.

다른 하나는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않으며 문무를 겸비했다는 것이다.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날씨가 더운 만큼 어깨를 드러내고 반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깔끔한 양복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은 세일즈맨으로서 촌사람 취급을 받기 일쑤다. 문무를 겸비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최고 수준의 육설 문화(문)과 함부로 휘두르는 주먹(무)을 가리킨다.

이들은 체면을 매우 중시해 일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더라도 체면을 살리려고 노력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같이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므로 친척들 사이에서도 형편을 잘 모르고 지내는 편이다.

제 1606호 2006년09월06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성도]

경쟁보다 화합을 중시하는 여유있는 삶

중국의 유명한 소비도시인 성도는 독특한 지역특색과 자연환경으로 중국의 사회문화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원지역과 교통이 단절되고 왕래가 적었던 만큼 성도는 중국의 주류 문화와 크게 차별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또한 황하

문명과 쌍벽을 이루는 장강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성도는 차 문화가 발달하고 삶을 즐길 줄 알고 노름을 좋아하기로 유명하고 연해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뒤떨어졌지만 오락 산업만은 발달했다. 성도인들은 마작을 즐기

기로 유명한데, 심지어 거리에서 찻집에서 밤낮없이 마사를 즐긴다. 물론 마사가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중적인 오락이지만 마사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수준이다.

성도인들은 대중적인 문화특징을 갖고 있는데, 항상 삼삼오오 모여서 활동을 하며 함께 마사를 즐기고 차를 마신다. 특히 볼거리가 있는 곳에는 성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감하고 참여하기 좋아하며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도는 중국에서 아침에 제일 늦게 일어나고 걸음걸이가 가장 느린 곳이다. 성도인들의 느긋함은 이들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조건에 기인된다. 옛날부터 옥야천리의 벼농사 지역으로 광활한 평원과 풍부한 물산은 성도인들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다. 오늘날에도 독립경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성도 남성들은 유머감각이 뛰어나며 북경인들 못지않게 말재주가 뛰어나다. 무미건조한 일도 이들의 입을 거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된다. 성도 남성들은 대부분 '분지의식'이 잠재돼 있으며, 작은 것에 만족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데 익숙해 있다.

성도의 '여유로운 도시' 특징과 심천의 '무한도전의 도시' 특징은 두 도시의 남성들에게 전혀 다른 생활태도를 가져다 줬다.

성도 남성들은 내일을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지는 않지만 심천 남성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성도 남성들은 상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부드럽고 애처가로 유명하며 가정에 충실하다. 이들은 아내

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기도 한다. 성도 남성들은 대장부 기질과 상해 남성들과 같은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남편감 일순위로 꼽힌다.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다가 최근 서부대개발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중요한 소비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명품관이나 대형 백화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맥도널드, 코카콜라 등 세계적인 패스트푸드나 유명 브랜드가 눈에 띄는 정도로 개방 물결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소득수준은 심천에 비교가 되지 않지만 자가용 보유량은 심천과 같은 수준이다.

중원에서 들어온 북방문화와 서남쪽에서 들어온 남방문화가 뒤섞여 형성된 독특한 문화로 인해 성도인들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다르면 재검토하는 성격이다. '성도인'의 작가 린원원(林文洵)은 "느긋하며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북방기질에 강인한 근로정신과 변화에 민감한 남방문화가 겹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상대하기 힘들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예로부터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경시하며, 화합을 중시하고 경쟁을 경시했다. 이런 기질을 타고난 성도 상인은 농사짓듯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중국 상인 가운데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들은 대개 유순한 편이지만 일단 비위를 뒤트리면 성질이 대단해진다. 과묵하고 의리심이 강하지만 남에게 배신을 당하면 돌연 난폭해지는 특성도 있다.

제 1605호 2006년08월30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남경] 외부 문물에 우호적 ... 경쟁의식 부족해

2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4대 고도(古都)중의 하나이며 중경, 무한과 더불어 '3대 찻통도시'로 잘 알려진 남경은 과거 6대 왕조의 도읍지였을 정도로 번성을 누렸지만 오늘날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관심의 대상에서 떨어진 도시가 됐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남경은 도쿄, 로마, 런던과 같이 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북경과 상해에 밀려 점차적으로 그 지위를 잃어갔다. 남경대학살을 겪은 뒤 남겨진 음산한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폐허로 남은 역대 왕조의 유적 때문인지, 중국에서는 가장 우울한 도시로 손꼽힌다.

경쟁의식이 부족한 남경인들은 북경이나 상해의 눈부신 발전에 대한 질투심이 없고 또한 스트레스도 덜 받는 편이다. 쉽게 만족하는 남경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에 대해 전혀 불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며, 타인과의 교제를 하면서 항상 평범한 심성으로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를 포용한다. 심지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귀속감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토박이 남경인들마저도 자신이 남경인인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남경인인지에 대해 무관심이다. 따라서 외지인들은 손님이나 주인이 따로 없이 정착을 하게 되면 자연히 남

경인이 된다.

남경의 외지인들은 대부분 강소성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로 소남과 소북으로 나눈다. 소남은 대체로 부유한 편이며, 남경에 온 소남 출신들은 토박이 남경인들을 업신여긴다.

이들은 토박이 남경인들을 세련되지 못한 촌티 나는 도시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북은 비교적 낙후돼 있으며, 남경에 온 소북 출신들은 근면하게 생활하며 성질이 부드러운 편이다. 이들은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 남경에 온 소북 출신들은 단결의 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무의식중에 넓은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남경시의 행정을 다스리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토박이 남경인이 아닌 외지인들이다. 실제로 남경 출신의 관료들은 보기 드물다. 그만큼 남경은 외지인들에게는 매우 우호적이며 성공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

상해, 중경과 같은 도시에 비해 외지인에 대한 배척이 없기로 유명한 남경에서 외지인들은 짧은 기간에도 쉽게 적응하게 된다. 남경인들은 외부 문물에 대해 열광적이기도 하다. 남경에서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돈을 벌어들이기 쉽다고 한다. 이들은 상해 패션, 일본 가전, 그리고 광고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을 선호한다.

토박이 남경인들은 지금도 일본인이라면 치를 떤다. 거리에서 한국말로 답소를 나누다

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본어로 착각한 토박이 남경인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일본 가전제품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남경은 지리적 위치가 특별해 사람들은 남방도 북방도 아닌 특별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활하는 남경인들도 북방인이나 남방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역사학자들도 남경인의 성격 특징에 대

해 '과도한 중용정신'으로 평가해왔다.

남경 남성들은 소주나 항주 남성들처럼 온유하지도 않고, 북방 남성들처럼 패기가 넘치지도 않으며, 상해 남성들처럼 계략에 능하지도 않다. 남경 남성들은 꼬치꼬치 따지는 것을 싫어하며 웬만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지나치려 한다.

제 1604호 2006년08월2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광주]

음식(茶)문화 발달 ... 실리주의 사고

광주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현대화된 도시이다. 변화한 시장과 조용한 골목이 어우러져 현대사회의 신선한 충격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옛 풍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주에서 유명한 '도시속의 농촌'은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산물로 도시 외곽지역은 현대화를 실현했지만 도심은 오히려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변화하고 현대화된 외곽지역의 건축물과 도시 분위기는 도심의 음침하고 낙후된 건축물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주인들은 식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남에게 뒤지려 하지 않는다. 물질적인 향수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은 다른 소비에서는 인색하더라도 식생활에서만은 절대 인색하지 않는다.

북경인들은 언어표현의 용기, 상해인들은

패션에 대한 용기, 광주인들은 식생활에 대한 용기가 있다. 네발 달린 것은 밥상을 빼고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를 빼고 물속에 있는 것은 잠수함만 빼고 모두 먹는다는 말은 광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광주인들의 차문화는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시간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이른 새벽에는 아침차, 햇볕속에서 점심차, 밤의 장막이 드리우면 저녁차를 마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할 것없이 차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며 심지어 수십명이 큰 룸에 자리를 잡고 함께 즐기기도 한다.

오늘날 광주인들에게 있어 찻집은 점차적으로 정보교류의 장이 돼 사람들은 찻집에서 주식, 부동산, 그리고 새로 출시된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연조유품을 이어받은 북경 남성, 빈틈없고 세심하지만 대장부의 기질이 부족한 상해 남

성, 전형적인 남성우월주의자인 조주(차오저우)와 산두(산터우)의 남성에 비해 광주 남성들은 특별한 색깔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돈주머니가 더부룩해지자 이와 관련된 행위모델이 형성됐다.

실리만을 따지던 광주 남성들도 ‘맨즈(체면)’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됐는데, 북방 남성들의 맨즈가 주로 ‘정치’ 또는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광주 남성들의 맨즈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광주 남성들은 유명 브랜드 옷차림에 유명 브랜드 안경을 끼고 고급 호텔에 드나들고 선물도 고급품 인기를 따진다.

낭만적인 사랑은 광주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정량화한 표준, 즉 물질적인 것들인 주택, 승용차, 자녀건강보험이다. 이들에게 있어 결혼은 ‘매일 마실 수 있는 국물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결혼상대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보니 주변에 열선거리는 미인에게 별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결혼 후에도 가정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중국내에서 이혼율이 낮은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힌다.

광주는 북경, 상해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상업 규제로 중국에서 상업이 가장 발전한 도시 중의 하나가 됐다.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도시인만큼 광주에서는 기회가 많고 돈을 벌기 쉬우며 또한 생활이 자유롭다. 오늘날 광주는 여전히 생존의 법칙과 게임의 룰로 어우러진 비즈니스 각축장으로 매년 2회에 걸쳐 개최되는 광주교역박람회는 광주의 상업적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제 1603호 2006년08월16일 발행 중소기업뉴스